

얼마전에 일본에서 새 수상이 선거되고 새 내각이 발표되었다.

일본의 새 정권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베-스가정권의 대외정책기조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신임수상과 그가 동용한 내각의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신임수상은 새 내각을 발표하면서 일본군성노예문제, 강제징용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에서 이전 당국들의 철저한 대변자였던 외상과 방위상을 그대로 류임시켰다고 한다.

내각의 2인자라고 하는 관방장관이나 경제산업상에도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고 자발적이었다》, 《다케시마는 일본고유령토》라고 쟁쟁한 인물들을 앉힌 것을 비

롯하여 구유인물들로 내각을 꾸렸다고 한다.

하기는 수상자체가 아베 정권당시 외상을 하면서 2015년에 남조선의 보수 《정권》과 《한일 위안부합의》를 낳은 구유인물이다.

이들이 어떤

나서야 한다고 강변하였다고 한다.

국회에서 첫 연설에서도 자기들의 일관된 립장에 따라 남조선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압박하는 등 남조선에 대한 강경 립장을 표시했

고있다.

남의것도 제것이아 우기는 파렴치, 죄악의 과거도 《정의의 역사》로 외목하는 교활성, 꿈틀거리는 제집야망으로 달아오른 군국주의방기- 이것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오는 일본의 정치적유전인자인 모양이다.

일본이 세인으로부터 《정치난쟁이》, 《21세기 야만국》, 《경제동물》이라고 비난받는 것이 우연한 것은 아니며 더는 개종될 수 없는 섬나라족속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자들과 《미래지향적발전》, 《소통과 협력》을 운운하는 남조선자본주의자들도, 과거청산의 역사적 책무도 저버린 썩어빠진 자들이라고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섬나라특유의 유전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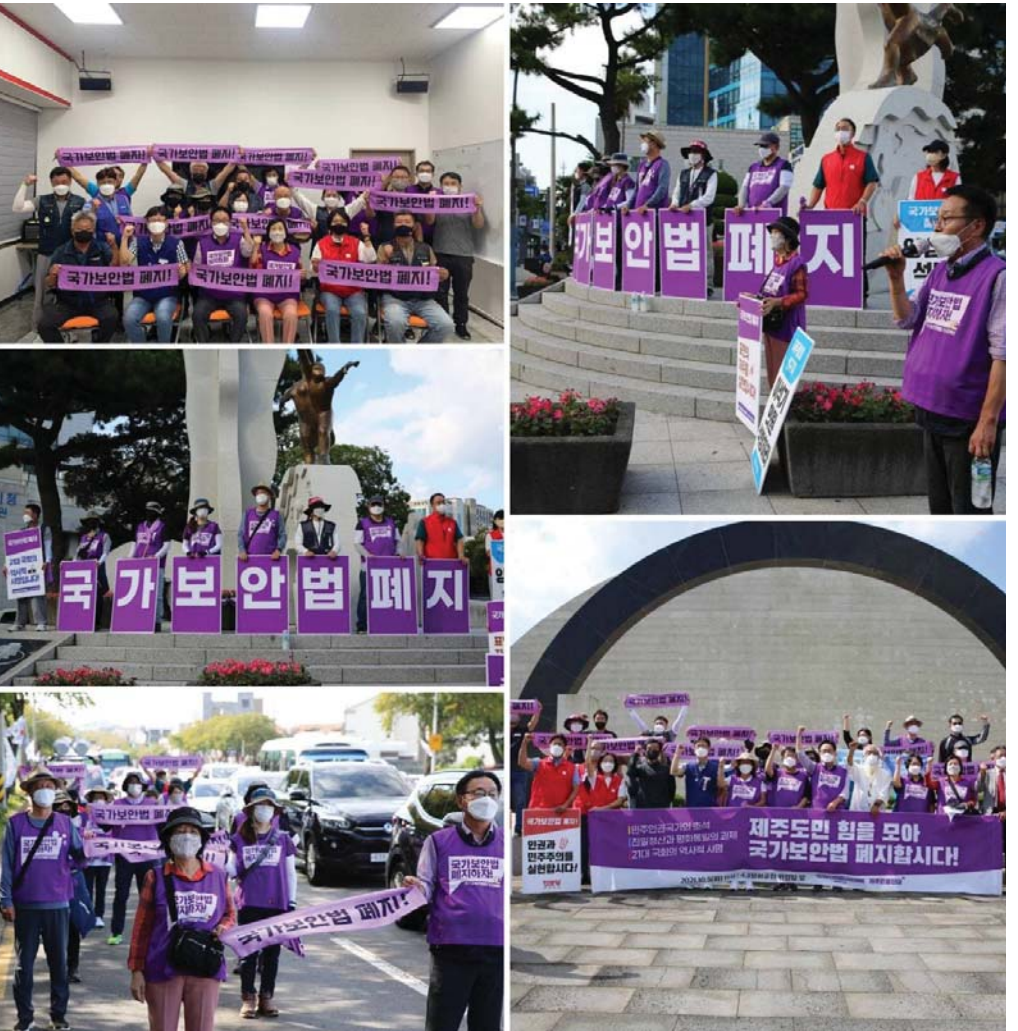
길로 일본을 이끌어갈지는 불보듯 명백한 것이다.

실제로 신임수상은 취임을 전후로 하여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해 남조선이 《한일위안부합의》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강제징용과 해배상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먼저 국제적인 합의와 국제법을 지키고 관계개선에

다고 한다.

한편 일본은 국제사회가 조선통해를 《일본해》로 공식 인정하는 듯이 외목한 인터넷화면전집물을 제작, 광고하고 19세기에 발행된 세계지도의 약 90%에 조선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었다는 낱조된 자료를 류포시킴으로써 자들의 《독도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고착시키려는 음흉한 시도도 벌

정 필



파쇼악법철폐를 위한 투쟁 전개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운동단체들이 지난 5일부터 각 지역들을 순회하는 《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 행진은 지난 3월 진보당과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맹》을 비롯한 100여개의 진보정당 및 사회단체들로 결성된 《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보안법폐지 국민행동》에 망라된 각계층 단체들은 이번엔 제주도에서 출발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남조선강원도에 이어 서울에 있는 《국회》의 사흘까지 행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여러 지역들을 거치면서 《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0km거리행진, 선진물배도, 민주열사들에 대한 추모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TV극이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모으며 상영되고 있다고 한다.

제목부터가 피이한 이 TV극은 일자리를 잃고 도박판에 끼여든 주인공을 비롯하여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자, 불법채류의 국민노동자, 로숙자 등 벼랑끝에 몰린 수백명의 사람들이 우승자에게 차레지는 상금을 따내기 위해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극단한 경기에 참가하여 서로 죽임살이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영화평론자들은 TV극이 돈이 없어 벼랑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그린 작품, 목숨을 건 생존경쟁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남조선에서 이 TV극이 이처럼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방영되고 있는 것은 극단한 생존경쟁과 약육강식이 만연한 남조선에 비하면 자본주의 사회현실을 그대로 파헤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TV극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빛에 허덕이며 지옥같은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단 1명의 우승자에게 차레지는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잔혹한 경기를 하는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금 인간을 극단적인 경쟁으로 내몰고 그 속에서 인성이 말살되어가는 야수화된 남조선사회의 슬픈 현실을 절감하게 만든다고 한다.

특히 1등이 아니면 죽어간다는 약육강식의 경기규칙을 만들어놓고 수백명의 처참한 살육이 벌어지는 경기를 오락으로 여기며 쾌락을 느끼는 권력자의 형상을 통하여 횡포와 잔인성이 만무하는 사회, 돈 없는 사람은 극소수 부자들이 가지고 노는 장기폭처럼 취급 받는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격

분을 자아내게 한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TV극은 사람들로부터 화려한 《경제성장》과 《물질적번영》의 외피속에 숨겨진 불평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더 우습게 되고 있다.

《너 아니면 나》라는 극단한 개인이기주의에 기초한 남조선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이 사회적공조로 되고 페롤레트와 사기협정, 폭력범죄와 같은 각종 사회적악이 판을 치고 있어 사람들은 한시적인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돈을 위해 이웃들간에 칼부림이 벌어지고 부자간, 형제간, 동료, 이웃간에 벌어지는 살인, 강탈, 폭력행위 등은 부지기수라고 한다.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은 많은 청년들이 《벼락부자》를 꿈꾸면서 부동산과 주식투기에 적극 뛰어들었다 오호러 많은 빚을 진 《잇세대》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것도 보편적이다.

청년들뿐 아니라 로인들까지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범죄의 길에 들어서고 있으니 설명이 더 필요없는 것이다.

하기에 지금 이 TV극을 본 시청자들은 경제적불평등이 심한 남조선사회의 실상을 실감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취업, 부동산, 주식 등 치열한 경쟁속에 탈락자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남조선사회의 실상이다. 이런 사회에서 승자가 된 인간은 패자들의 시체우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서 사는 현실이 저주스럽다. 전세계를 휩쓸고있는 경기침체는 공포라는 소감을 밝히었다고 한다.

이 TV극은 지옥같은 현실의 축소이고 남조선사회의 현연적살물이라는 것이 민심의 평이다.

죽어도 못 고치는 병

최근 남조선에서 《국방과 학기술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내내 이어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논의된 것이 군사장비현대화와 그에 따른 대책문제라고 한다.

한편 남조선합동참모본부의 장이라는 자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북이 핵공격을 해오면 한미가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역격하겠다》, 《북의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한 각종 미사일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허세를 부렸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개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고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적대외의식은 명이 다할 때까지 못 고치는 병이다.

오늘날 이른바 《북위협》에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옥같은 현실의 재현

최근 남조선군부당국이 《선진군대》, 《선진적병영문화》를 떠들썩한 외세의 식민지고용군의 위약성과 부패타락을 가리워보려는 한갓 미사려구이고 가련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기강이 해이된 군》, 《정직하지 않은 군》, 《바람잡을 날이 없는 군》... 이것이 바로 썩어문드러진 군부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개탄의 목소리이다.

《정직하지 않은 군》, 《바람잡을 날이 없는 군》... 이것이 바로 썩어문드러진 군부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개탄의 목소리이다.

재앙과 불행의 화근덩어리

얼마전 남조선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사시설들의 허술한 실태와 오염상태가 다시금 폭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 군이 보유한 전체 탄약고 3 959곳중 1 007곳이 안전규정에 위반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중 395곳이 민간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30년 이상 방치된 낡은 탄약고가

최근 남조선군부당국이 《선진군대》, 《선진적병영문화》를 떠들썩한 외세의 식민지고용군의 위약성과 부패타락을 가리워보려는 한갓 미사려구이고 가련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기강이 해이된 군》, 《정직하지 않은 군》, 《바람잡을 날이 없는 군》... 이것이 바로 썩어문드러진 군부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개탄의 목소리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본 범죄집단

《국회》가 밝힌 《각 군별 환경오염사 및 실태조사현황》에 의하면 지난 5년간 151개 군부대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특군 약 3만 4 823명, 해군 6 009명, 공군 9 169명, 해병대 1 189명등으로 전체 5만 1 190명의 토지가 유류 및 중금속 등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한다.

오염된 군부대도양 대부분에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금속인 납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석유탄화수소계열의 유해물질들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군부대의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범죄와 인권유린의 소굴

남조선군은 그야말로 온갖 범죄의 소굴로 되고 있다.

이런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된데 의하면 지난해 군부대에서 구라, 폭력 등에 대한 신고가 1 451건이나 제기되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자살사수는 41명에 달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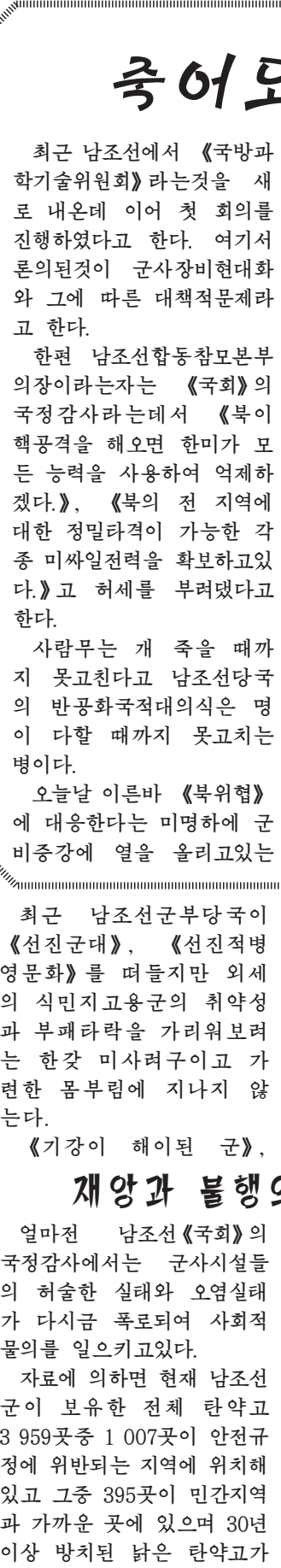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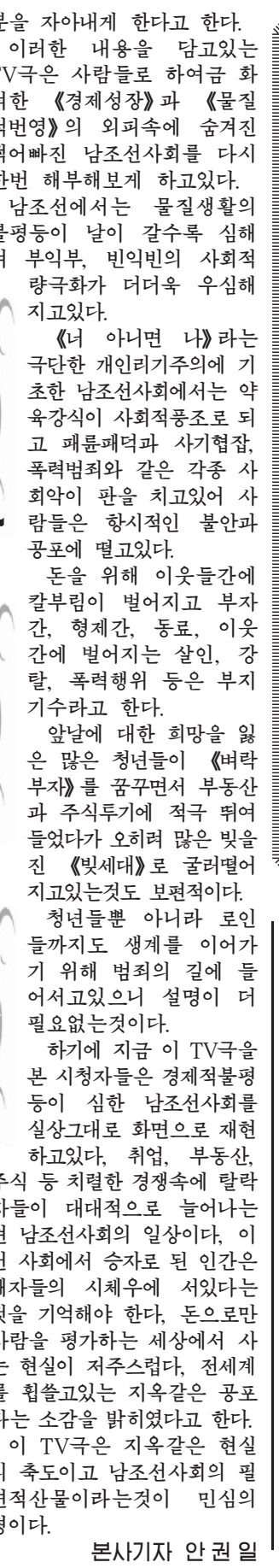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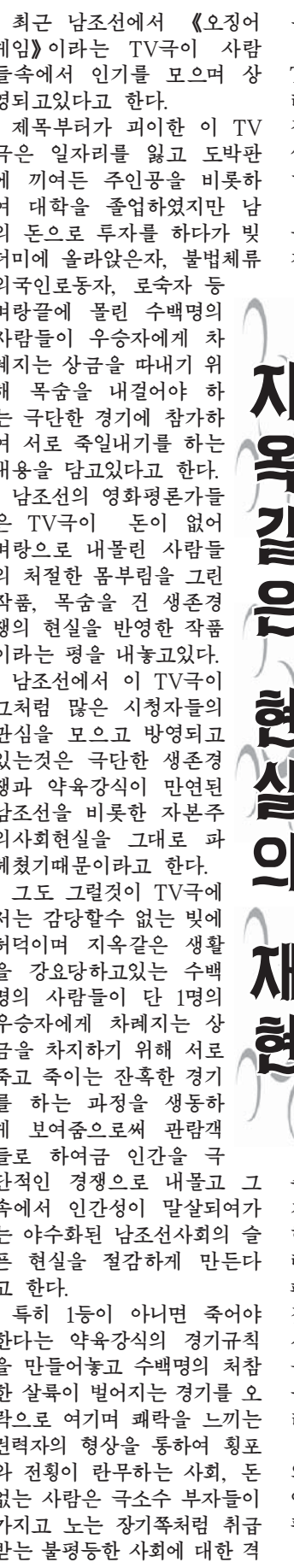
더우기 올해 몇달전에 공군부사관이 성폭행을 당하

범죄집단

군체육부대에서는 선수생활을 하는 사병들이 감독에게 돈을 비롯한 뇌물을 쥘리주고 경기참가자격을 따는 행위가 보편화되고 있는가 하면 장교들이 주요 시설경계체거수제 민간기업이 제작한 장비가 불량인데도 합격을 주어 막대한 자금을 챙기는 등 부정부패행위가 더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군내부에서 128건에 달하는 군사기밀누출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70%가 장교들에 의해 산생된 것이라고 한다.

부패한 오물덩어리, 정신도 먹적으로 타락한 집단이 바로 아직도 식민지고용군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군의 전연모인 것이다.



인물당의 《정결》 란명

요즘 남조선의 《국회의원》이 목이 쉬게 고아내는 소리가 있으니 바로 《부정부패척결》이다.

정계와 사회를 소란하게 하는 대장동개발독해의혹의 주인공이 바로 더불어 민주당의 리제명이라고 칭방을 올리는 데 그를 가리켜 《최악의 부동산비리설계자》, 《구치소에 가야 할 범죄자》, 《구원내나 시궁창》, 《악취》 등 소리까지 튀어나온다.

남들 보고 《구원내나 시궁창》, 《악취》,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사건사법해의혹, 최의 수입차판매기업 추가작악의혹과 뇌물수수, 문묘표절의혹, 장모와 예비의 부동산투기의혹... 완전한 부패덩어리 윤석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 지금 시점에 공개된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고아낸다.

오히려 대장동개발독해의혹을 더욱 여론화하면서 《특별감사제》 도입을 위한 1인시위를 벌이고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과대를 세우며 《동물죽어》를 재현하고 있다.

얼마전 공수처는 윤석열의 선거개입사건을 실증하는 특음자료를 부구하여 공개하였

다고 한다.

... -고발자작성자를 《우리》라고 표현하라.-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것으로 되지 빠지겠다.-

-여당이 장악한 서울지방검찰청이 아니라 윤석열의 측근들이 있는 대검찰청에 꼭 접수시키라.-

... 이것은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후보자와 엮고 현재 《국회의원》의 원인 김용이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에게 한 전화내용의 일부이다.

《천허 모르는 일》,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해온 윤석열과 《국회의원》의 첩변파가 낱날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선거개입의혹사건말고도 대형금융사기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사건사법해의혹, 최의 수입차판매기업 추가작악의혹과 뇌물수수, 문묘표절의혹, 장모와 예비의 부동산투기의혹... 완전한 부패덩어리 윤석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 지금 시점에 공개된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고아낸다.

오히려 대장동개발독해의혹을 더욱 여론화하면서 《특별감사제》 도입을 위한 1인시위를 벌이고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과대를 세우며 《동물죽어》를 재현하고 있다.

파시 2012년 청와대와 정보민, 군사이버사령부, 검찰, 경찰, 보훈처 등이 동원

